

# 전북 제3금융중심지 연구용역 마무리

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종본 금융위에 전달

3월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 열려... 지정여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1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제출받아 오달자나 통계, 편집 등에 잘못된 게 있는지 꼼꼼히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100대 국정 과제에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5월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번에 연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연구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지난 10년간 성과와 향후 과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검토 필요성 ▲전북혁신도시 상황과 금융중심지로서의 타당성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2주 간의 감수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연구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위원들의 보고서 검토와 일정 조율에도 최소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해 다음 위원회는 3월 이후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유관

기관, 민간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최종 지역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워낙 정치적·지역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공고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을 추가 지정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 약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출간지간 송년세미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은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뉘어 있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

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나섰다. 실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세계 주요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IC)에서 서울과 부산은 100개 도시 가운데 지난해 9월(하반기) 기준으로 각각 33위, 44위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한국거래소를 부산으로 내려보냈지만 이를 뒤따라간 증권사는 하나도 없다는 점이 국내 금융중심지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놓고 전북과 부산이 충돌하며 지역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라 금융위의 고민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반면 전북혁신도시에 640조원대의 돈을 움직이는 국민연금이 내려가 있고 이와 연계해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인 미국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BNY멜론의 연가계 은행업무 사무소도 개설되는 만큼 전북 금융중심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긍정론도 금융위 내부에서 나온다.

뉴스

#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생활 위해'

농지연금 설문조사, 신규 가입자 87.9% '만족한다' 응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욱)는 2018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밝혔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할 수 있어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해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t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최대 20.6% UP

감정평가액 반영을 상향 등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월연금액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욱)는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식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을 위한 제도이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신속한 대응체제로 철저한 소독 통한 차단방역 집중!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서민식 농협경영자추진위원장·김창수 전주경제연구원장·김희철 전주중대신문장·김희철 전주중대신문장은 2월 21일 완주군 가축시장을 방문, 구제역 백신 접종지원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북에서 구제역 3건 발생한 상황에 구제역이 전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하여 귀성객 등 차량이동이 많

은 기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내 구제역 발생시 초동대응 철저, 행정과 긴밀한 협조,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등 농협 시군지부 및 축협 등 계통기관의 구제역 방역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 종식을 위해 구제역 백신 공급, 접종지원 등 차단방역에 힘써주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축질병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더

욱 힘써 달라"고 전했다.

또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가 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의심증상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축산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농협은 지역본부·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 가동중이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생식회를 긴급 공급하고 축협을 통한 취약농가 백신공급, 접종지원,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투입해 방역취약농가 에 대해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의 일



환으로 2월 21일까지 도내 9개 가축시장 임시 폐쇄 조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며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도 실시 중단한다. /김영태 기자

소성모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방역예방활동 철저히"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회금융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전북농협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상황실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일 밝혔다.

또한, 남원축협 생축사업장을 방문, 방역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구제역과 AI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역본부·시군

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가동중이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생식회를 긴급 공급, 축협을 통한 취약농가 백신공급, 접종지원,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투입해 방역취약농가 에 대해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나눔으로 온정 넘치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을"

한전 전북지역본부, 노사 간부·봉사단원 합동 떡국 나눔 행사 펼쳐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 전력노조 위원장 최홍철, 장재춘)는 노사 간부, 사회봉사단원 30여명은 지난 1일,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손길 이 절실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6일 밝혔다.

관내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동 소재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직접 따뜻한 떡국을 전달하고, 후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관할 구역 주민 중 제도의 사

각 지대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40여명을 대상, 내선 설비 점검 및 생필품(쌀, 소고기, 떡국 등)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다.

정은호 본부장은 "이 작은 행사가 어르신들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힘든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랑 나눔을 펼쳐 온정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